

## 2021-1 가천인 독후감 대회 심사평

김준희(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혼자 놀기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다. 천 번을 휘저어 달콤한 커피를 만들거나 가상세계로의 나들이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거나, 작은 화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하며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눈과 귀는 그렇게 세상과 타자를 향하며 ‘재미’를 찾는다.

그런데 책은 어렵다. 게다가 재미도 없어서 가까이 하기도 좀 그렇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우리에게 책은 그런 정도인 것 같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sup>1)</sup>’라는 우려의 목소리나 ‘책은 억지로 읽어야 한다’는 항간의 떠도는 이야기가 그래서 더 실감난다.

2021년 1학기 가천대학교 독후감 대회를 위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 29편을 선정하였고, 가천대학교 재학생 중 413명(내국인 323명, 외국인 90명)의 학생들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응모한 작품 중 15명의 내국인 학생들의 독후감과 7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독후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의사소통센터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가 기준에 따랐다. 먼저,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쓴 글, 내용적으로는 책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자기 성찰이 확장, 심화되는 글, 형식적으로는 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가독성이 높은 글을 우수작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으로는 국\*희 학생의 ‘비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연결하여 나아가는 길’(김초엽, 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이, 금상으로는 허\*진 학생의 ‘진이, 지니, 마음의 언어로 마주하다’(정유정, 『진이, 지니』), 김\*한 학생의 ‘인생의 피날레, 죽음’(김현아,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책에서 전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와 다른 외부세계의 문제를 지나치게 객관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이끌어 충분히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성찰의 과정을 구조화하여 잘 표현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에서는 연\*영 학생의 ‘위기의 순간 인간은 선한 본성에 압도당한다’(뤼트허르 브레흐만, 『휴먼카인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금상으로는 왕\*의 학생의 독후감(은희경, 『우리는 왜 얼마동안 어디에』)이 선정되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로 이를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수상작은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잘 표현하였다.

이번 독후감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책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바랐다. 좀 다른 마음으로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좀 더 알아 봐야 겠다’는 성숙한 마음이 생겼으면 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낮은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타자를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예민하게 자신을 향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일은 책을 읽는 일만큼이나 험난한 길이므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여 더 많은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을 읽은 사람만이 달을 수 있는 곳<sup>2)</sup>’에서 푹 터놓고 책 이야기를 하는 ‘재미’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독후감 대회에 응모한 모든 학생들과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심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의사소통센터장님 및 센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김성우, 엄기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따비, 2020

2) 사이토 다카시, 『책을 읽은 사람만이 달을 수 있는 곳』, 황미숙 역, 쌤앤파커스, 2021.